

정부양곡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수년째 쌀농사 흉작·출고량 늘어 빈창고 속출 장흥군 올 16만가마 보관...3년새 75%나 급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수년째 쌀농사 흉작과 양곡 출고량 증가로 비어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들이 늘어나고 있어 양곡관리에 대한 특별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일선 단위농협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양곡 보관용 창고가 지난해부터 출고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농협을 비롯한 일반(개인) 창고들이 보관료 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에 정부가 버(조곡) 2005년산, 2006년산, 2007년산에 이어 올해초 2009년산, 2010년산까지 가공, 주정용 목적으로 무더기로 출고하는 바람에 비어있는 양곡창고들이 속출하고 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을 살펴보면 전체 66동의 보관창고(농협 55동·일반 11동) 가운데 지난 2009년에 73만2000가마에서 2010년에는 71만가마였던 것이 2011년에는 31만가마, 올 2월말 현재 16만6000가마로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이들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농협 등에 지급되는 보관료(1일 114원)가 2009년에 9억1000만원에서 2010년에는 8억64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5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 2월말(2개월분) 기준 2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장흥지역에 보관중인 정부양곡은 2008년산과 2011년산 버(조곡) 14만가마(40kg)와 보리 2만4000가마 일 뿐 그동안 보관해온 정부양곡은 모두 가공, 주정용으로 모두 출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가 정부양곡 수매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2년간 버와 보리 등 농작물 흉작사태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정부양곡에 특별한 수급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정부양곡 창고 ‘여석울’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도라지 캐는 대덕들

담양군 대덕면 들녘에서 주민들이 봄나물로서 도라지를 캐고 있다. 도라지는 기침과 호흡기 질환, 항염, 독소와 노폐물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양군제공)

쑥쑥 자라는 장성 명품잔디

군, 8억 투입 생산장비·토양개량 지원

장성군이 잔디 명품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잔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억4000여만원을 투입, 잔디 생산장비 155대와 토양개량제 4만6000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산장비 기종은 잔디깎기 기계로, 농가당 180만원 한도 내 실소요액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대상 농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일까지 잔디 생산장비 및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오는 5월까지 지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민선 5기 공약으로 잔디 생산

성 향상과 유통시설 확충, 부가가치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잔디산업육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물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잔디테마공원과 잔디가공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친환경잔디 재배매뉴얼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성잔디의 명성에 걸맞은 명품화를 위한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의 잔디 재배면적은 현재 1563ha로 전국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나주 남평도서관 '책읽기 사업' 4년 연속 선정

소외계층 어린이 독서력 증진

나주 남평공공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및 독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남평도서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나주 금천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사서가 직접 지도하는 '친구와 함께 맞추는 독서퍼즐'과 '책 읽기와 역할극' 등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독서관련 전문 강사의 '책과 함께 놀기', '내 꿈 펼쳐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평도서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아동양육시설인 금성원을 방문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남평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해 통섭적 사고력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품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독서문화 기반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희기자 srchoi@

■ 세 일 글

“정전사고 예방·고품질 전력공급 최선”

강진 중 한전 장흥지점장

“안정적 전력공급과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중심 업무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강진중(54) 한국전력 장흥지점장은 “장흥지역 장흥을 등 10개 읍·면을 연결하는 장경간 배전선로 취약성을 감안, 정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선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회선선로와 송배선로 공사를 올 상

반기중 조기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사전 출신인 강 지점장은 경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한전에 입사한 후 거제지점 배전부장, 통영지점 전력공급팀장을 지냈다.

취미는 등산.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봄의소리’ 감성 공연

오늘 장성문화회관 소극장

장성군은 20일 오후 7시 장성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국악과 성악의 만남,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국악과 성악으로 ‘봄의 소리’를 그려낸 감성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료 공연은 봄을 주제로 한국의 색채가 담긴 국악음악회와 따스하고 포근한 성악 음악회가 만나 환상의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악 부문에서 ‘봄노래’, ‘옹헤야’, ‘벚노래’, ‘진도아리랑’을 들려주며, 성악 부문에서는 ‘봄치너’, ‘꽃구름 속에’ 공동으로 ‘나 가져다’를 선보인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전 북

군산 새만금축제 열린다

내달 13~22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거리퍼레이드·수산물·가요제 등 다채

“2012 군산 새만금축제”가 오는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시는 최근 거리퍼레이드 등의 주관 대행사를 선정해 관계부서, 관련업체 등과 업무협의를 갖고 오프닝 행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리 퍼레이드는 금강초등학교부터 내항사거리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까지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군산의 과거·현재·미래의 비전을 퍼포먼스로 연출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구시청 사거리에서는 시민과 행사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진행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행사·수산물 축제·군산 구불길 전국대축제·복지평생학습 엑스포(EXPO)·가요제 등 총 32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군산의 관광파이프라인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홍보와 윈도쇼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 무대를 근대역사박물관에 설치했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예술·문화공연을 유치해 군산 관광자원의 우수성과 수준 높은 예술문화의 향연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축제를 시작으로 2012년 ‘전북 방문의 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hognosu@



“태양흡점 잘 보이죠” 남원시 성인 문해(文解)학교 한글반 노인들이 최근 남원 항공우주전문대를 방문해 천체망원경으로 태양흡점을 관찰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우주전문대 강사로부터 기초 과학 상식과 최신 천문우주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작통 곰소젓갈 판치는데...

수억여치 무허가 액젓 제조 판매 일당 적발...부안군은 팔짱만

부안군이 추진하는 ‘곰소 젓갈 명품화사업’이 행정적 부재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은 지난 16일 수억여치의 액젓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58)서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검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안군내 도서지역에서 멸치와 새우를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판매하고 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특히 액젓 제조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위생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관계기관에 식품제조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부안지역이

젓갈 명소인 점을 노려 일부 제품명칭까지 도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안 주민들은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와 원산지를 속여 판상인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안군이 단속행정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품 젓갈로 유명한 부안 곰소젓갈에 대한 행정지도가 민선시대 이후 차차단절의 인위위주의 행정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종 포털사이트의 경우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젓갈이 ‘곰소 젓갈’로 상위에 링크돼 팔리고 있는 등 곰

소 젓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 특이 사항이 실정이다.

곰소항 젓갈협회 관계자는 “곰소 젓갈은 일본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높은 가격에도 좋은 품질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공무원이 단체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잘못을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 구더기 젓갈이 제조돼 유통됐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선시대 때는 군수가 군민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 산만단속과 같은 공무원의 단속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사법권을 준 공무원조차 단속을 발령하는 후유증 때문에 단속을 꺼리게 된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 신

전주시 씬채소 텃밭상자 분양

전주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씬채소 텃밭상자를 분양한다.

씬채소 텃밭상자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덕진구 벼 공동육묘장에서 씨앗을 파종한 후 10~15일 정도 키워서 4월 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쉬고 있는 벼 공동육묘장을 활용해 신선한 채소 육묘를 재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농가소득 증대 등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보건소 암 조기검진 사업

군산시 보건소(소장 이재문)는 올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권을 받은 시민이다. 대상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문의(063-460-3268)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hognosu@

남원시 농기계 임대료 카드로도 납부

남원시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신용카드로도 받는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15일 신용카드로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20일로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받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기계를 임

대할 때 현금으로만 임대료를 수납해 예로사황과 불만이 많았다.

남원시 농촌지원과 오희재 팀장은 “농업인의 현금취급에 따른 위험부담 감소와 농기계를 빌리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bs8787@

정읍 복분자 생산 공동 시험연구 협약 체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복분자 안정생산 기술실증 공동연구 시험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기본연구계획 수립과 주요 생육조사를 추진하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장포장

관리 및 수량 세부조사를 맡는다.

양 기관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분자 생력증진 친환경 재배를 이용한 고수율 발생 경감 대책을 마련, 향후 농업인 재배기술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